

#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첫 주말 2만명 '복적'

기차 매대·천장의 별자리  
60~80년대 향수 불러와  
인기 길거리 음식 총출동  
대기줄 최장 20m 늘어서



문전성시 지난 28일 임시개장한 광주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이 방문객들로 복적되고 있다. 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 18일 정식개장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8일 밤 8시,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임시개장 첫날인 이날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은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에 이끌린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도 야시장을 찾는 인파는 전국 야시장의 인기 메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풍성한 먹거리가 매료했다. 메인무대가 자리한 야외광장은 친구, 가족과 함께 야시장을 즐기기에 좋은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손에는 저마다 야시장에서 구입한 큐브 스테이크 등 먹거리가 들려 있었다.

야외광장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 앞에는 음식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대기줄이 최장 20m까지 늘어선 시장 분위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였다. 푸드트럭 10대 중 이날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트라켄 트럭'이 판매하는 태국식 볶음 면 요리인 '쉬립프 팟тай'과 '램브 트럭'의 양갈비 스테이크. 독특한 풍미가 일품인 양갈비 스테이크는 1인분에 8000원 정도로, 길거리 음식치고는 비싼 편이었지만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자몽 주스 등 상큼한 과일 주스를 판매하는 푸드트럭도 기뻐진 음식을 맛보고 후식을 찾는 시민들로 복적였다. 기차 터널을 연상하게 하는 입구를 지나 들어선 시장 내부는 많은 인파와 풍성한 먹거리로 더욱 장관을 이뤘다. 밤 8~9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파가 떠밀려 다닐 정도였다. 시장 내부는 인산적이었다. '남광주 밤

기차 야시장'이라는 테마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기차모양의 이동식 매대, 천장을 수놓은 별자리처럼 '기차역', '밤', '추억' 등을 떠올릴 수 있는 장식들이 60~80년대 남광주역의 아련한 향수를 선물했다. 시장 통로에 자리한 이동식 매대 30개에는 전국 야시장에서 내로라하는 인기 음식들이 가득했다. 키조개 양념 꼬치, 가리비 버터 치즈 구이, 해물탕수육, 해물오코노미야끼, 홍어 샐러드 등 '수산물 특화'라는 남광주시장의 특색을 살린 메뉴와 함께 물방울 참쌀떡, 인삼튀김, 프랑스식 굴떡볶, 콩나물 마약오뎅, 철판이스트림 등 이색적인 먹거리가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1500원짜리 꼬치부터 6000원짜리 소고기 큐브 스테이크까지 가격대도 다양했다. 가게마다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부 매대는 200~300

인분의 음식을 일찌감치 '완판'하기도 했고, 반팔 차림의 상인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음식을 조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기존 시장 상인들은 30여명의 청년 상인이 영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기와 물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왔다. 부족한 쉼터와 볼거리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쉼터가 없어 방문객들은 구입한 음식을 서서 먹어야 했고, 문화공연이 부족해 음식을 먹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음식은 길거리 음식치고는 다소 비싸다는 불만소기도 나왔다. 추승현(42) 이동매대 상인대표는 "앞으로 5~6개월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임시개장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부분의 상인들이 음식을 완판하는 등 일단은 성공을 거둔 것 같다"며 "남광주시장만의 특화된 먹거리와 트렌드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상인들간 의견을 나누고 있고, 베틀시장과 같은 볼거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우(26) 푸드트럭 상인대표는 "대인 예술야시장, 1913 송정역시장과 달리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이 갖고 있는 '먹거리 특화 야시장'이라는 컨셉과 40여종류의 다양한 메뉴가 시민들에게 통한 것 같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임시개장 첫주인 28~29일 모두 2만명의 방문객들이 야시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개장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은 다음달 12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임시 운영되며, 다음달 18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정식 개장한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3, 해질 17:39, 달출몰 07:00, 달몰 18:14

☀️ **오늘의 날씨**

☀️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림	7/14	보성	흐림	5/15
목포	흐림	10/15	순천	흐림	9/15
여수	흐림	12/14	영광	흐림	5/14
나주	흐림	4/14	진도	흐림	9/14
완도	흐림	10/14	전주	흐림	6/13
구례	흐림	5/14	군산	흐림	6/12
강진	흐림	8/15	남원	흐림	4/13
해남	흐림	7/15	축산도	흐림	11/12
장성	흐림	4/13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1.0~2.5
	면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북동	0.5~1.5	북서~북	1.0~2.0
남해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북동	1.5~3.0

☀️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낮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4	02:18
	19:59	14:48
여수	02:53	09:24
	15:24	21:24

☀️ **주간 날씨**

날짜	11/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씨	☀️	☀️	☁️	☀️	☀️	☀️	☀️
기온	5/10	2/13	4/17	5/17	7/19	8/20	8/19

## 광주시, 노약자 무임 교통카드 운영

12월 12일부터  
광주시는 오는 12월 12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이 2004년 개통된 뒤 무임승차 대상자들은 역사 내 복합발매기에서 신분증을 이용해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카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함께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유치원생에 호국 교육?

보훈처 유치원·초·중생에 '호국 보훈교육 의무화' 추진 논란  
국가보훈처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호국보훈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안보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훈처는 30일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에 대한 호국보훈교육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또 각 학교에 교육을 담당할 전담교사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호국보훈교육의 이수 및 시행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정안은 호국보훈교육 교재 개발 등을 위해 보훈처

산하에 호국보훈교육원을 설치하고 실제 교육을 담당할 호국보훈교육센터를 각 지역에 세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에선 이미 사회나 역사 교과 과정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근현대사의 인물을 다루면 아무리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안보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연협뉴스

## 이번주 기온 '뚝'

11월 첫주 광주·전남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월 첫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기온은 평년(최저 4~11도, 최고 16~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10도 수준에 머물고, 2일에는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달 4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민기자 kki

## 7년간 타인 명의로 산 완도 40대 구속

7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온 40대 남성이 해경에 구속됐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약 7년 전부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사서명 위조 등)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께 알게 된 지인 최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일정한 직업 및 주거지 없이 서울, 인천, 완도 등에서 공사현장과 양식장 인부로 일하는 등 떠돌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김씨가 최씨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고용주 등에게도 자신을 최씨로 밝히고 일했다"며 "김씨가 수배중이거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없는 점으로 미루 현재까지는 체포 때문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김씨가 명의를 도용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원도=정은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SH SH BUILDING**  
진월·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임대·분양** |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빗고을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료, 커피숍 안경(입점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5㎡,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료사용가능(150평)

땅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등기 가능 준공필

**(062)676-4006 · 010-5681-4015**  
시흥 성희개발(주) 시흥 한아중합건설(주)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망!
-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 계약금 5%!(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평 / (구)30형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0.8%의 900만 원) | 30년 내 집 마련 | 100% 분양권 | 20년 보증 | 100% 명품주택

**분양문의 351-4610 (062)**

모델하우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4-1번 농성역 7번 출입구 밀려메시 빌딩

시흥 (주)유탑디앤씨 · 시흥 (주)유탑건설 · 시흥 (주)유탑